

축 사

보고경제연구원 김정국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동북아경제포럼의 조이제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국의 귀빈 여러분 !

저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보고경제연구원의 김정국
회장이며, 오늘 각국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고경제연구원은 동북아경제포럼 산하의 동아시아경제
연구원(API)과 2005년에는 <중국 환황해지역 물류기지
건설방안 연구>, 2006년에는 <중국 11 차 5 개년 계획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 저의 연구원은 2006 년 3 월 30~31 일에는
동북아경제포럼과 중국의 교통운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중 국제물류 협력체계연구>라는 국제 컨퍼런스의 실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컨퍼런스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체계 방식으로 제시 되었던 중국 산둥성 위해시와 한국 경기도 평택간 열차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는 부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센터의 임정덕원장과 한국의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지내신 이정옥박사께서 이번 토론회의 멤버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빈여러분,
최근의 국제물류연구는 Airport, Seaport 와 IT 개념에 의해 도출된 Teleport 등 3 개의 Port 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비슷한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3 개의 Port 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 경제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류의 국제협력이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하바로프스크 경제포럼에서는 처음으로 Young Leader 연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지역협력을 지금까지의 물류협력에 인적 교류까지 추가시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저의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Young Leader 연수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적은 힘이나마 최대한 협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원대한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끝으로 아무르강의 광활한 하바로프스크 평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보람찬 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